



군종주보

2024년 7월 21일(제1203호)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인류의 모든 문제는 홀로 고요히 있지 못하는 무능함에서 유래한다.”

17세기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블레이크 파스칼은 인류의 불행의 뿌리가 사람들이 홀로 고요히 머무는 법을 모르는 것에서 유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현재에 존재할 수 없는 무능력이라고도 보았던 것이죠.

고요함과 침묵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산만함과 부산스러움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번덕과 권태와 불안의 모습은 오늘날 더 심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들 열심히 산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무언가 하지 않음에 머무르며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받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했던 일들을 보고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잠깐 식사를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외딴곳으로 가려고 했다가도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가도 꼭 외딴곳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바쁘게 살아가면서 홀로 머물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성당에 앉아 성체 조배를 하며 고요함과 침묵 가운데 머무르며 얻는 평화를 체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박지현(요셉) 신부
제주해군(해군 제7기동진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예레 23,1-6

회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2 독 시

에페 2,13-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마르 6,30-34

영성제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다섯 번째 시한

그런데 관장의 첩이 된 이 관기가 관내의 어떤 통인과 눈이 맞아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관장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첩을 그녀의 기적이 있는 본 고을로 쫓아버렸습니다. 그 첩은 그 통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몰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그 통인과 함께 살면서 교우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어느 산골로 도망가서 여종을 해방시켜 양녀로 삼았습니다.

예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노래와 춤을 즐기고 온갖 정욕에 방종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험악한 산속에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악의악식(惡衣惡食)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한 신앙생활은 모든 교우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인 하나가 여러 해 전부터 천주교를 믿으려 하였으나 남편이 결사적으로 포악하게 금하였습니다. 또 천주교 교리를 몰래라도 가르쳐 줄 신자를 만나지 못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 차례 남편과 집을 몰래 빠져 나와 어느 친척 교우한테 가서 교리와 기도문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의 큰 노력 끝에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이를 안 남편이 크게 분노하여 자기 아내에게 미신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충실한 여종은 끝끝내 거부하였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때려죽이려 하자 여인은 몰래 남편 집을 도망쳐 나와 교우 집을 돌아다니면서 결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남편과 자식들과 가정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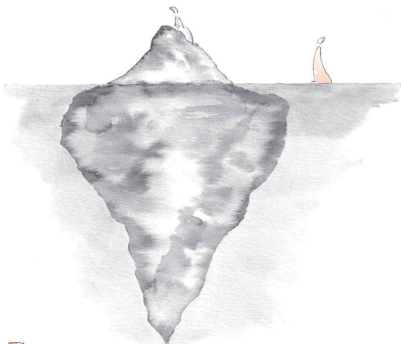
전번의 제 서한(열네 번째 서한)에서 어떤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소문으로 천주교 교리를 듣고, 어느 공소 회장을 찾아가 천주교 교리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거절을 당하였으나 마침내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 집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이사하여 다음해에는 자기들이 세례받을 준비를 다 마치고 자기 마을에서 공소집을 차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어찌 아시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
차가운 곳에 앉아.
하늘만 보았지요.

외딴 골짜기
적막한 곳에 서서.
하늘만 기다렸지요.

그런 나를
어찌 아시고
여기까지.

그런 나를
어찌 보시고
이렇게 여기.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최후의 심판



직지 미상 / 1000년경 제작
상 리지로 성당 / 오통, 프랑스



하단 린탈 세부도

지난주에 이어 본 최후의 심판 팀과눔의 하단을 가로지르는 린탈 부분을 보면, 망자들의 영혼이 석관에서 일어나 나오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중 어떤 이는 천사의 인도를 받고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피로움과 혼란에 얼굴을 감싸고 있다.

또한 망자들(나체로 표현됨)의 무리에 섞여 보이는 인물들은 순례자들로 이들은 순례자임을 표시하는 문양을 하고 있는데, 위 세부도에서 십자가 모양의 표식이 옷에 새겨진 이와 조개 모양의 표식이 옷에 새겨진 인물들이 보인다.

전자는 예루살렘으로의 순교자를 나타내는 표식이며, 후자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프스텔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다. 이렇듯 망자와 순례자를 함께 묘사해 놓음으로써, 라자로 성인의 뼈가 묻혀 있던 이 성당을 방문하는 모든 순례자들이 본 최후의 심판 장면에 동참하는 셈이 된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성당 외부 집제도

교 구 소 식

군중포럼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6주일: 교포탄 오승수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 국장회의

때·곳: 7월 21일(주일) 11: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때·곳: 7월 23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